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8期(2026.11.03) WWW.MINGHUI.ORG 한글판 1082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오다

【중국법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중국법회】 진퇴양난일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하며 마음을 닦아 승화하다

【해외법회】 두려움을 돌파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다

〈목차〉

제23회 중국법회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오다 ····· 3
단층집 작은 뜰의 짙은 꽃향기 ····· 15
나이가 들수록 더 정진하며 마음을 많이 닦고 사람을 많이 구하다 ·· 26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각종 사람 마음의 장애를 돌파하다 ·· 37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 47
진퇴양난일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하며 마음을 닦아 승화하다 59

해외법회

두려움을 돌파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다 ····· 66
얻기 힘든 이 수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 74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오다

—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마음가짐과 수련 경험 —

글/ 중국 산둥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 년 내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직접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는 산둥성의 할머니로, 올해 63세입니다.

'9평 공산당'이 발표된 이후,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일을 한시도 늦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가 폭로된 이후,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더욱 확고하고 정성껏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거대한 흐름에 녹아들었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빌려, 직접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제 수련 과정을 글로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발정념하는 체계를 형성하다

처음 밖으로 나가 직접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는 마음속으로 두렵고 긴장됐으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한 걸음을 내딛고 싶었습니다. 당시 우리집은 직장에서 세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끔 퇴근할 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길을 따라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끊임없이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당신들이 순정(純淨)한 심태에서 한 일이야말로 가장 좋고 신성한 일이다.”(정진요지-재인식)

매일 명혜망에 올라오는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정성껏 읽으면서,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것은 단순히 속인의 방식으로 속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대법이 부여한 법력과 지혜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오직 자신을 잘 수련해 스스로의 공간장을 순수하게 해야만 중생구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발정념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중생구도를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차츰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하며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해야 하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정법 노정이 앞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난이도 역시 끊임없이 커졌습니다. 원래 있던 휴대폰 메시지와 삼퇴 음성 전화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전화 실명제, 휴대폰 감시, 사복경찰의 미행, 거주지 감시, 그리고 도처에 있는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의 출현은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각지 설법13-2015년 뉴욕법회 설법)

외출해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면 끊임없이 발정념을 해 사악에게 세상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교란할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상을 알리기 시작하자마자 연속으로 3명이 듣지 않거나,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상황을 만나게 되면, 즉시 멈춰 서서 비교적 조용한 곳을 찾아 안으로 찾고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부님 말씀을 듣고 주저함 없이 대면해 삼퇴를 권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한번은 길가에서 도로를 수리하던 3명의 농민공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 곁눈질로 오토바이를 탄 치안 순찰 경찰이 저와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 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계속 3명의 농민공에게 진상을 알리고 그들에게 삼퇴를 시켜준 뒤 진상 소책자를 건넸습니다. 이후, 자전거에 올라타 빠르게 앞으로 달려 나갔고, 그 치안 순찰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쫓아왔습니다.

앞에 있는 공사장 울타리에 다다를 즈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서서 순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쫓아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도망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쫓아오는데 제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한테도 한 권 주면 안 되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삼퇴를 시켜줄 테니 평안을 지키세요.” 그에게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이라는 진상 소책자를 꺼내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홍복(洪福)’이라는 이름으로 삼퇴시켜 줄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홍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중공 악당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시켜 줬고, 경찰은 기뻐하며 두 권의 진상 소책자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뛰었고 한바탕 놀란 참이었습니다. 내친김에 길가에 주저앉아 안으로 찾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금세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제 진상 소책자를 보내준 수련생이 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소책자 외에 '9평'을 몇 권 더 보내왔는데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원망심을 제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튿날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할 때 교란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원망심과 마음속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는 아주 큰 누락이었습니다. 즉시 발정념으로 제거하고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대략 10분쯤 뒤, 다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삼퇴한 사람들에게 진상 소책자와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 하나를 건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간 뒤 더 많은 대법 진상을 이해하고 오늘 진상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진상을 전하기 편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대법 진상을 알게 되니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2.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에 주의하다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옷차림과 행동거지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행동거지는 신중하게 하고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하며 떳떳하게 대법제자의 진실함과 선량함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자전거를 타고 칭허 강변에 막 도착했을 때 마주 오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을 보았습니다. 먼저 다가가 말

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큰 소리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약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잖아.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당신들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자료를 배포하잖아.”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발정념을 했습니다. ‘그가 진상을 듣는 것을 가로막는 배후의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자.’ 그가 말을 마치자 미소 띠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법제자가 몰래 숨어서 자료를 배포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예전에 은퇴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진상 자료를 전해줄 온전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목숨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대법 진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퇴근한 뒤 진상 자료를 챙겨 아파트 단지에 가서 배포했어요. 사람들이 진상을 알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두 손으로 진상 자료를 사람들 집 문 앞에 놓아두었죠. 사람들이 대법제자가 집 문 앞에 놓아둔 자료를 꼭 읽어보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지금은 제가 은퇴해서 시간이 생겼으니 이렇게 선생님께 대면해 진상 자료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진상 자료를 한번 보세요,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는 “저한테 두 권 줄 수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능하죠”라고 하자, 그는 기뻐하며 두 종류의 진상 자료를 골랐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다가 결국 죽는다고 하셨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얘기해 봐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한 반에 대략 50명쯤 아이들이 있고, 반마다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하며 지식을 가르치죠. 학기 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는 아이도 있고, 90점대나 80점대, 60점대를 받는 아이도 있으며 심지어 낙제하는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나요?"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쯤 조성되자 저는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도 약을 먹지 말라거나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진실하고 선량하며 너그럽게 포용하고 참을 줄 아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죠. 평소 누구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야 해요. 뒤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나쁜 생각조차 품지 않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지 않나요?"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당원인데 이름은 탕○○입니다. 실명으로 탈퇴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적어둘게요."

3. 상대방이 시각을 넓히도록 돕다

1) 또래의 입장에서 선한 마음을 일깨우다

한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부부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한 남성이 걸어와 저와 멀지 않은 곳에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진상을 다 알리고 삼퇴시켜 준 뒤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딱 보니 지도자이신 것 같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촌위원회에서 파룬궁 관리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감히 파룬궁을 선전하고 다녀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좋고 서민들도 잘살고 있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저희 둘 나이가 비슷한 것 같네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60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면 다들 손자나 외손자가 있을 나이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 다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갈 때 선생님이 데려다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 데려다줄 수 있겠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한 번이라도 안 데려다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를 안 데려다주면 마음이 안 놓인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땐 학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주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불과 몇 년이나 지났다고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든 초등학교에 가든 중학교에 가든 학부모가 다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해요. 선생님, 이런 사회가 서민들을 안심하고 살게 해주는 건가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민들 먹거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제

가 어릴 때는 좁쌀죽이 참 맛있었어요. 좁쌀 본연의 맛이 순수하고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좁쌀죽을 드실 때 그런 순수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맛이 안 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독성 식품이 널려 있어서 토마토, 오이, 과일에 다 약을 바르는데 선생님도 그런 걸 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지금 다 '독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식품들은 포장도 정교하고 종류도 눈이 부시게 많은데, 어떤 식품에 독이 있고 어떤 것에 독이 없는지, 어떤 게 기준치를 초과했고 어떤 게 합성된 건지 우리 서민들이 어디 가서 구분하겠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들어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탈퇴하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원이고 공청단에도 가입하셨으며 붉은 스카프도 매셨죠, 맞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연이 있으니 오늘 제가 가명으로 예전에 가입하셨던 당·단·대 조직에서 다 탈퇴시켜 드릴게요. 이게 바로 삼퇴로 평안을 지킨다는 건데 반드시 본인이 동의하셔야만 해요. 머리 삼척 위에 신령이 계시니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실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말씀드리느라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어요. 진상 소책자 한 권 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정성껏 읽어보세요. 다 읽으신 후엔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보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요. 몇 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세 가지 종류의 진상 소책자를 고른 뒤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2) 젊은이의 입장에서 삼퇴를 돕다

또 한번은 수련생 한 분과 일행이 돼 걸어 다니며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평소 우리는 서로 앞뒤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 진상을 알리면서도 서로를 챙겨줍니다. 제가 앞에서 막 한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시켜 준 뒤 뒤돌아보니, 일행인 수련생이 두 젊은 청년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수련생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수련생에게 달려가니, 수련생이 국가의 개인 연금 정책 제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들렸는데 두 청년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주위에 이미 사람들이 한 무리 둘러싼 것을 보고 급히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청했습니다. ‘사부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수련생을 제 뒤로 끌어당긴 뒤 두 청년을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회보장국 직원이에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정책을 만들거나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 정책 제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중에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안 그래요?” 두 청년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당신들에게 파룬궁에 관해 얘기하는 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파룬궁 진상을 알려줘서 당신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 그래요.” 두 청년이 모두 물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당신들에게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당신들 둘 다 당에는 가입한 적 없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공청단에는 가입했고 붉은 스카프도 맸었죠, 맞죠?"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사람한테 가명을 하나 지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명을 하나 지어줘서 예전에 가입했던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시켜 줄 텐데, 괜찮죠?" 그들 모두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퇴로 평안을 지킨다'는 건데, 당신들이 뭘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 유효해요. 머리 삼척 위에 신령이 계신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당신들이 삼퇴하고 나면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거예요." 그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세요. 큰 재난이 닥칠 때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고 수련생을 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며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발정념해 중생이 구원받는 걸 교란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철저히 제거합시다. 사부님께 우릴 가지해 달라고 청합시다."

4. 신기한 순간 중 하나

사부님께서는 늘 저희를 가지해 주십니다. 사부님께서 대법제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저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공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수련생과 일행이 돼 걸어 다니며 대면해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습니다. 수련생과 2~3m 정도 거리를 두고 제가 앞서 걸으며 두 눈으로 길에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연 있는 사람을 찾느라, 길가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제 발이 허공을 딛는 바로 그 순간, 제가 내디뎠던 발이 방향을 바꿔 맨홀 가장자리를 따라 지나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수련생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방금 그녀가 보았던 찰나를 말해 주었습니다.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땐 당신 발이 이미 허공을 내디딘 상태여서, 깜짝 놀라 머리카락이 다 쭈뼛 섰어요.” 신기하게도 수련생은 제 발이 맨홀 가장자리를 따라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부님께서 또 한 번 제자를 보호해 주셨음을 알았고, 제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맺음말

그간 걸어오면서 느낀 점은 법공부를 잘하는 것이 전제이자 근본적인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찾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하는 말이 비로소 순수해질 수 있고 단번에 사람 생명의 미시적인 부분까지 꿰뚫을 수 있으며, 사람 배후의 사악한 생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법공부와 연공, 발정념은 모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법공부, 마음 수련, 발정념의 기초가 있었기에 삼퇴를 권하는 일도 기본적으로 순리대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해내는 것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구

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마음가짐을 평온히 했습니다. 지금 저는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발정념을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발정념을 합니다.

제가 매번 삼퇴시키는 인원수는 몇 명에서 수십 명이었고, 가장 많을 때는 한 번에 101명이었습니다. 삼퇴를 권하는 과정에서 환희심을 내지 않고, 대충 넘기지 않으며 인연 있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퇴를 권한 사람 중에는 지식인, 간부, 경찰, 재학 중인 대학생도 있었고 시민, 노점상, 농민공, 그리고 거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꼭 사부님 말씀을 잘 듣고 안으로 잘 찾으며, 자신을 수련해 수련을 처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만고의 성스러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전의 서약을 실천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단층집 작은 뜰의 짙은 꽃향기

— 우리집 자료점이 20년간 안전하게 운영된 이야기 —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올해 64세입니다. 2007년 수련생의 제안으로 우리집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가정 자료점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안전하고 평온하게 운영돼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명혜망과 긴밀히 이어진 중국 자료점의 일원으로서 마음속으로 무한한 영광과 신성함을 느낍니다. 사부님의 보살핌 아래 명혜망을 바짝 따라 걸어오며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하며 저만의 수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래에 수련 체험을 조금씩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립니다.

원래 농촌에서 살다가 1997년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해 단층집 한 채를 사서 이때부터 도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도시 곳곳에서 일을 하며 품을 팔았습니다. 바로 이 해에 친척에게서 파룬궁을 알게 됐습니다. 친척은 몸이 약한 것을 알고 이 공법을 배워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진선인(眞·善·忍)'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참 좋다고 느껴 "그럼 이 공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에 동창이 저를 자신들의 법공부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모두 나이 많은 수련생들이어서 법을 읽는 것이 더듬더듬했는데,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저더러 그들을 이끌어 법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뒤 이 법공부 장소는 해산했고 혼자 집에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이 되자 아들이 대법 진상 전단을 자주 주워 집에 가져와 줬습니다. 보니 이 진상 자료들이 정말 잘 쓰여 있어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 모아 뒀습니다. 이 진상 전단은 사람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이니 저도 집에 쌓아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앞으로 밖에서 남의 집 대문 밖에 진상 전단이 버려져 있는 걸 보면 대문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줘라."

2006년에 다시 수련생과 접촉하게 돼 매주 '명혜주간'을 볼 수 있었고 대법의 진실한 소식을 제때 알 수 있었습니다. '명혜주간'과 아들이 주운 그 진상 전단들을 보고서야 중공 악당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정도가 얼마나 잔혹한지 알게 됐습니다.

2007년 봄, 우리집이 너무 낡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느라 텔레비전도 잠시 치웠고 남편이 볼 것이 없어서 남편에게도 '명혜주간'을 보게 해 대법 진상을 알게 했습니다. 그때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보고 분개해서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을 뿐이야. 돈이 있었다면 나도 기계를 사서 전단을 찍어 박해를 세상에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을 거야."

남편은 중공의 악인들이 대법제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해!"

몇 달 동안 공사를 해서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집이 거의 완공됐습니다. 어느 날 수련생 두 명이 우리집에 놀러 왔는데, 그중 한 명

이 새로 지은 집을 보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댁에 자료점을 세우고 수련생들이 여기 와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요?” 저는 “그럼요! 정말 좋죠.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러분이 우리집에서 하면 딱 좋죠”라고 하며 승낙했습니다. 수련생은 “가족과 다시 상의해 보세요.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묵인한 셈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수련생들이 진상 자료를 만드는 기계 등을 모두 우리집으로 실어 왔습니다. 아주 높고 큰 기계가 있었는데 수련생은 3만 위안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집 새로 지은 값이 3만 위안 남짓인데 이 기계가 집과 맞먹게 비싸네. 다른 물건도 있는데 이게 다 얼마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련생은 “당신도 같이 배워 보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안 돼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시간이 있을 때는 잡일만 도울 수 있었으며 주로 집이라는 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수련생 두 명이 우리집에 와서 자료를 만들었고 그때 ‘9평 공산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열쇠를 하나씩 주었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두 사람이 우리집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자료점은 이렇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수련생들은 이곳에서 1년을 일한 뒤 자료점을 떠났습니다. 이어 여자 수련생 몇 명이 와서 진상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누가 오든 이것저것 묻지 않았고 기계와 컴퓨터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자 수련생이 우리집에 와서 낱장을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

죠?” 저는 “여러분이 예전에 어땠든 상관없어요. 이왕 우리집에 왔으니 다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수련생들이 박해받은 과정을 얘기해 줬는데 무서운 대목에서는 듣는 저의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였습니다. 사악한 당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료점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사악한 것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고 수련을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고 알려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박해는 나와 상관없는데!’ 머릿속에 이런 일은 아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료점을 우리집에 세우게 한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각지의 박해가 아주 심했고 이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은 조카가 우리집에 왔다가 수련생이 있고 기계가 있는 것을 보고 자료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번은 형부가 와서 집 안의 이런 물건을 보고 제가 집에서 전단을 찍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친척들이 모두 몰랐는데 그들이 이 일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남동생을 시켜 제게 집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다 일이 터지면 잡혀가 감옥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전해. 누구든 내 물건을 건드리면 당장 업보를 받게 해 달라고 할 거야, 누구든 상관없이.”

진상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경찰차가 근처 큰길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자주 달렸지만 저와는 상관없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해가 계속 심해져 형세가 긴장될 때면 수련생이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라고 했고 저는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치우든 다 우리집인데 치우긴 뭘 치워?' 그때 수련생들이 와서 한 번 자료를 만들면 아주 많이 만들었고 막 인쇄해 잉크가 마르지 않은 것은 뜨거운 온돌 위에 올려 말려야 해서 온돌 가득 자료를 늘어놨습니다.

명혜망 진상 달력을 만들 때는 가을과 겨울이었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는데 종이가 눅눅하면 기계가 찍을 때 종이가 딸려 나왔습니다. 급해서 온돌에 불을 때고 종이를 한 더미 한 더미 온돌 가득 늘어놓은 뒤 큰 이불로 덮어 종이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쇄할 때 종이가 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몇 해 동안 이 자료점은 해마다 진상 달력을 3만 개 넘게 만들었고 달력 판은 모두 큰 차로 집까지 실어 왔습니다. 집 안팎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할 것 없이 달력을 만드는 물건이 놓여 있었고 달력 판은 방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였습니다. 완성된 달력은 상자째 밖으로 날랐고 우리집은 그야말로 작은 가공 공장이 돼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부님께 향을 올릴 때마다 사부님께 빌었습니다. "사부님 제자에게 가지(加持)해 주십시오. 제자가 바른일을 하니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가족을 포함해 누구도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집 자료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자료점이 됐고 여자 수련생 네 명이 사시사철 이곳에서 함께했으며 만든 진상 자료는 자루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금은 모두 수련생들이 기부한 것이었고 돈을 전담하는 수련생이 있어 대법 자금의 흐름을 엄격히 관리하며

조금의 허점도 없게 했습니다.

해마다 진상 달력을 만들 때가 일손이 가장 필요해서 저는 일하러 나가 돈 버는 것을 그만두고 전력으로 전체를 도와 사람 구하는 항목을 완수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닦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보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원융하고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협력을 잘하라. 누구의 생각도 가장 좋을 수 없으며, 그의 생각이 좋지 못하고, 전면적이지 못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묵묵히 그것을 잘 보충한다! 전면적으로 한다! 신은 비로소 당신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게다가 묵묵히 한 것이다! 관건은 누가 내놓은 아이디어인가에 있지 않으며, 이 과정 중에서 누가 자신을 연마(煉)해 냈는가에 있는바, 누가 자신을 수련하면 누가 제고해 올라온다.”(각지 설법 15-2019년 뉴욕법회 설법)

우리집 자료점의 네 명의 여자 수련생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저는 돈이 없어 환경만 제공했기 때문에 묵묵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며 수련생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집에서 아주 편하게 지냈고 때로는 진상 자료를 다 찍고 나면 이 어질러진 것을 던져 놓은 채 저에게 “정리 좀 해 줘”라고 하고는 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은 어질러진 것을 하나하나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일을 가리지 않았으며 기계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인쇄를 시킬 때만 손댔습니다. 나중에 명혜망의 기술 관련 글을 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인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련생들은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함께 왔는데 모두

가정주부라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쁠 때가 되면 진상 자료 사용량이 많아져 그들을 기다리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켜서 먼저 인쇄하고 그들이 오면 이어서 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일했는데 이곳에 올 때 물건을 사 와서 제 몫뿐만 아니라 남편 몫까지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따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제 남편 것까지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도 견딜 수 없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자꾸 우리집에 물건을 사 오시면 여기서 하지 마세요.” 수련생들은 “한 사람 몫이 더 든다고 뭐 어때요?”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A 수련생과 D가 사 오는 것이 더 많았는데 두 사람 집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B는 제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 있으니 사 오게 두세요!” 저는 “언니, 저는 언니가 아는 것과 달라요. 남이 돈이 있는 건 그 사람의 복이고 제가 돈이 없는 건 그런 복이 없어서예요. 수련에 작은 일은 없고 어디든 닦아야 해요. 사람 마음으로 일을 재면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우리집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저도 조금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그들이 채소를 사지 못하게 하고 우리집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전기요금과 석탄 살 돈을 주려 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아도 우리집에서 전기를 써야 하고 석탄을 때서 난방해야 하니 제가 써야 할 돈이에요.” 그들은 제가 정말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듬해 가을에 아예 석탄을 사 왔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현금으로 환산해 그 돈을 자료 만드는 데 쓰라고 기부했습니다.

한번은 아들이 공부하느라 종이가 급해서 제 인쇄용지에서 A3 용지 한 장을 빼 썼습니다. 아들에게 “종이를 쓰면 돈을 내야 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얼른 50전을 꺼내 인쇄용지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저는 수련인이니 늘 스스로를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어떤 사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점이 사시사철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남편도 그 일원이 됐고, 바쁠 때는 남편도 저희를 도와 낱장 모으기, 자료 포장, 달력판 접기, 봉투 씌우기 등 갖가지 허드렛일을 했습니다. 두 해 겨울에는 달력을 만들 때 인쇄할 수 있는 B와 저만 남아 일하고 나머지 수련생은 모두 일이 있어 먼 길을 떠났는데 떠날 때도 다른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B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 둘이 새벽부터 밤까지 해요”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당신은 제본을 맡아요”라고 했습니다. B는 시간이 되면 갔고 저는 이어서 인쇄했으며 남편도 군말 없이 이것저것 거들며 새벽부터 밤까지 해서 마침내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달력을 다 만들고 곧바로 진상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수련생 세 명이 또 먼 길을 떠나 저와 C만 남았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일을 다 못 할까 걱정돼 물었습니다.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데도 제시간에 왔습니다. 올 때쯤 저는 이미 인쇄물을 아주 높이 쌓아 놨습니다. 그녀는 와서도 자꾸 “며칠에 다 끝낼 수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속으로 ‘뭘 자꾸 묻지? 빨리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남편에게 낱장을 모으게 하고 그녀는 책자를 제본하게 했으며 저는 인쇄하며 봉투에 넣는 일까지 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서두르지도 않고 느긋한 모습이어서 마치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이 저를 위해 일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수련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해 휩쓸리지 않았고 밖을 보지도 않았으며, 그녀와 견주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편과 더 많이 해서 역시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수련생들이 급히 필요로 했는데 그들이 중생구도를 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련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가운데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한번은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쓰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만든 100여 권의 책을 다음 날 들어 보니 50여 권의 표지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나, 이건 대충 하는 것이 아닌가.' 자료점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반드시 최고로 해야 하고 이곳은 사람을 구하는 원천이니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그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표지를 붙일 때 풀을 좀 더 많이 바르세요."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온 뒤에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표지들 다시 붙이세요. 풀을 좀 더 많이 바르시고 일은 책임감 있게 해야 해요." 그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 명혜망은 자료점이 곳곳에 꽃피우도록 제창했고 각 가정 자료점의 자료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이 네 명의 수련생은 우리집에서 철수했으며, 우리집은 독립적인 가정 자료점이 돼 남편

이 저를 도와 일했습니다.

2020년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전염병이 발생한 뒤 수련생들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급함을 깨달았고, 몇몇 수련생은 서둘러 농촌으로 내려가 대규모로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도 유난히 바빠져 새벽부터 밤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더욱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매번 300~500부씩 자료를 가져가 시골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자료를 나눠 주며 사람을 구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게 사람을 구하니 집에서 진상 자료를 더 많이 만들 때 조금 피곤한 것쯤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힘든 사람은 그들이니 꼭 후방 지원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해에 수련생들은 시골 마을을 거의 한 바퀴 다 돌았고 도시의 아파트에도 수만 부의 진상 자료가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힘을 합쳐 사람을 구했고 우리집은 진상 자료를 가장 많이 만든 곳이었습니다.

2023년 사부님께서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시자 수련생들은 다시 대규모로 대법의 복음을 전했고, 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자료를 만들어 수련생들에게 제때 공급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련생이 적지만 상대하는 중생은 많아서 수련생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미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자료점은 팽이처럼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도시의 한구석 평범한 단층집 작은 뜰에서 짙은 꽃향기가 피어올랐으며, 이곳이 바로 저의 도장으로 마음을 닦고 집착을 없애며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묵묵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하나 지나왔고 어느새 2

0년이 흘렀습니다. 제자가 처음에 순수한 바람을 가졌을 때 사부님께서 이 수련의 길을 깔아 주시고 세심하게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부님의 넓고 큰 부처의 은혜 속에서 이 길을 평탄하게 걸어오며 서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천 마디 만 마디 말을 다 해도 사부님께 느끼는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을 처음처럼 하면 도(道)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최후에 이를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대만 교류회에 드림)

제자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변함없이 정법수련의 길을 걸어 원만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가서 사부님을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정진하며 마음을 많이 닦고 사람을 많이 구하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 저는 인연이 닿아 대법을 얻었고 올해 91세가 됐습니다. 위대한 은사님의 보살핌 아래 30여 년의 수련 과정을 평온하게 걸어왔습니다. 해마다 명혜망 원고모집 공지가 발표될 때마다 저는 무척 조급했습니다. 글을 쓸 수 없고 쓸 줄도 모르며 또 쓸 내용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수련을 잘하지 못했고 제가 한 일들은 모두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무엇으로 사부님께 보고해야 할까요? 그래서 원고모집 때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올해 막 원고모집 공지가 발표된 후 한 수련생이 저를 격려하며 투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쓸 줄 모르고 쓸 내용도 없으며 수련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비로소 펜을 들어 쓰게 됐습니다.

아래에 저의 30여 년 수련 경험을 말씀드려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인연이 닿아 법을 얻고 수련하다

수련 전 저는 몸에 병이 많아 위궤양, 신장염, 빈맥 등을 앓았습

니다. 1994년 어느 날 아침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공원으로 갔습니다. 깃발 하나가 나무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연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공을 연마하십니까?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파룬궁인데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 무척 좋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무척 기뻤고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시간에 맞춰 연공하러 갔습니다. 연공에 참가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연마해야지! 동작을 표준에 맞춰야 해.’

당시 저는 기공에 대해 잘 몰랐고 병을 치료하려는 생각으로 대법에 들어왔습니다. 갓 대법을 얻었을 때 매일 아침 연공하며 어떻게 연마할지만 중시했고 어떻게 수련할지는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법륜(轉法輪)’ 보서를 모셔 오긴 했지만 당시에는 읽지 않았고 연공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공부 팀에 참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책을 보며 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이 보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동하게 하며 성명쌍수(性命雙修)까지 있으니 정말 얻기 힘든 보서입니다!

진정으로 수련한 이후 정말 병이 없어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수련한 지 30여 년 이래 약 한 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올해 91세지만 몸이 아주 건강하고 얼굴 피부에 윤기와 탄력이 있으며 주름도 많지 않습니다. 귀도 먹지 않았고 눈도 침침하지 않으며 머리도 맑고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며 기껏해야 75~6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사부님께서 대법을 널리 전해주신 덕분이며 제자가 인연이 닿아 대법을 얻어 수련할 수 있었고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2. 법을 수호하는 큰 물결에 뛰어들다

1999년 '7·20' 중국공산당(중공) 박해가 발생한 후 연공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연마하지 못하게 하다니 공산당은 대체 왜 저럴까! 게다가 사람을 잡아가고 가두다니 너무 말이 안 돼!' 마음속으로 무척 분노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퇴직 전이었는데 직장 상사가 저희 직장의 몇몇 수련생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연공을 포기한다는 보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연공을 통해 몸이 다 나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던 병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상사는 듣고서 가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몇몇 수련생과 다음 날 베이징으로 청원을 가려 준비했는데 직장에서 이를 알고 저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 당위원회에 청원하러 가려 했는데 결국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혼자 갔습니다. 당시 당위원회 문 앞에는 수련생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당위원회 체육관 안으로 쫓겨갔습니다.

저는 당위원회 체육관 문 앞에 도착해 안에 수련생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제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두려워해!' 제가 막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한 수련생이 저를 뒤로 끌어당겨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간 수련생들은 모두 대형 트럭에 차례차례 실려 끌려갔습니다.

저는 체육관에 들어가지 않아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밖

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다 함께 큰 소리로 법을 외웠고 차에 실려 가는 수련생들은 모두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습니다. 차 아래에 있던 수련생들은 차 위로 먹을 것을 던져주며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은 무척 장엄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주 외진 곳으로 끌려가 버려진 채 방치됐습니다.

3.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걷다

박해가 발생한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법을 실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상 표어를 붙이고 진상 소책자를 배포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막 큰눈이 내렸는데 저와 남편은 동이 트기 전에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거리에 도착해 전봇대에 진상 표어를 붙이고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이제 막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매일 아파트 단지에 가서 위아래 층을 오르내리며 각 세대에 진상 소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9평 공산당' 등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2015년에 저도 실명으로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써서 여러 수련생과 함께 우체국에 고소장을 부치러 갔는데 걸어가며 정념을 발하니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이후 저도 중공의 교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항상 쑥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과 말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해. 이건 내 책임이야.' 한번은 공원에서 한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듣자마

자 화를 내며 제게 욕을 했습니다. “당신은 공산당이 주는 걸 먹고 쓰면서 이렇게 양심도 없이 당에 반대하다니!”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저를 가리키며 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그를 위해 하는 일인데 왜 듣지 않을까!’

그 후 저는 매일 나가서 대면으로 진상 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가도 두렵지 않았고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든 다 만날 수 있었고 별별 말을 다 들었지만 점차 개의치 않게 됐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진상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한번은 상점에서 한 여성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91세입니다.” 그녀는 무척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공경하며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시면 됩니다.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파룬궁 연마하는 사람들은 사람만 보면 당, 단, 대를 탈퇴하라고 하던데 당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공산당의 상황을 아직 잘 모르시네요.” 저는 그녀에게 공산당의 사악함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 ‘수련인은 적이 없다’[정진요지 3-세간을 향해 바퀴(輪)를 돌리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혈육이니 삼퇴를 권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녀는 알아듣고 삼퇴를 했습니다.

또 한번은 버스 안에서 인연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일하러 왔다가 만여 위안을 벌었는데 다 병 치료하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병을 없애는 좋은 처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세요. 마음이 진실하면 영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소형 진상 플레이어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사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녀는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삼퇴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추위와 더위에 상관없이 매일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릴 때 등 어쨌든 기회만 되면 사람을 만나 진상을 알립니다. 공원 경비원, 도로 환경미화원, 농민, 대학생, 퇴직 간부 등 신분을 불문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탈퇴를 권할 수 있으며 막 사람 구하고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가 사람 구하는 것을 돕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탈퇴를 권하지 못할 때는 집에 돌아와 저 자신을 안으로 찾으며 제게 사람 구하는 데 영향을 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4. 사부님의 보호로 기적이 나타나다

그동안 저는 사부님께서 늘 제 곁에 계시며 항상 저를 보호하시고 보살펴주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나이 85세 되던 해 한번은 공원에서 진상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왼쪽에서 스쿠터를 탄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와 순식간에 저를 들이받아 쓰러뜨렸고 저는 부딪혀

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보니 그가 무척 긴장하고 두려워했으므로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저는 그에게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삼퇴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덕분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올해 설 전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의자를 딛고 올라가 TV 위의 먼지를 닦으려 했는데 제대로 딛지 못해 떨어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데도 다치지 않았고 종아리 피부만 살짝 벗겨졌습니다. 지금 보니 다리에 흉터가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90살 넘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데도 다치지 않다니 일반인이었으면 골절됐겠죠? 다행히 사부님이 계신 덕분이에요!” 저는 마음속 깊이 제자를 보호해주신 은사님께 감사드리며 그 덕분에 제자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5. 정념으로 신의 위력을 나타내다

저는 매일 4개 정각에 발정념을 하고 가끔 발정념을 놓치면 시간을 내서 보충합니다. 매일 나가 진상을 알리기 전에 발정념부터 합니다. 진상 알리는 곳이 멀어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논어(論語)’를 외우고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진상을 알립니다.

86세 되던 해 한번은 진상을 알리러 나갈 때였습니다. 대문을 나

서자마자 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뜻밖에 북쪽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저를 들이받아 넘어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에 타는 것이 급해서 얼른 바닥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몸이 좀 이상해지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 길이야. 구세력 네가 내가 사람 구하러 가는 걸 방해해도 소용없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자 즉시 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아무 이상이 없었고 모든 게 정상이었으며 진상을 알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 주신 덕분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지러워도 나가서 사람을 구해야 해!’ 뜻밖에 대문에 막 나섰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을 안으로 찾아보고 먼저 법 공부부터 하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왕 수련인 이상 우리의 수련 이 길에는 우연한 일이 없다.”(뉴질랜드법회 설법) 저는 어디를 잘못했는지, 어떤 누락이 생겨 구세력이 틈을 탔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지러

워도 나는 나가서 사람을 구해야 해.' 저는 정념을 발했습니다. '내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흑수(黑手), 난귀(爛鬼)를 제거한다. 나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하고 있다. 네가 사람 구하는 것을 교란함은 죄를 짓는 것이고 넌 날 교란할 수 없다.' 그러자 그다지 어지럽지 않았고 저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가끔 진상을 알리러 가다 버스에서 내릴 때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심장이 심하게 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정념을 발해 사부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잠시 서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돼 사람 구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6. 자신을 잘 닦아야 한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대법제자로서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잘 닦아야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다섯 가지 공법을 한 번에 다 연마하고 법공부와 발정념을 합니다. 오전에는 진상을 알리러 나가고 오후에는 우리집에서 '전법륜' 한 강을 통독한 후 각지 설법을 공부하고 '명혜주간(明慧週刊)'을 보며 가끔은 '사부님 은혜를 회상하며(憶師恩)'를 듣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나면 계속 법공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전법륜'을 외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는 한 수련생이 친절하게 제게 법을 외우라고 권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법을 외우겠어요? 이리저리 깜빡하고 다음 문장을 외우면 앞 문장을 잊어버리니 법공부할 시간만 지체돼요." 수련생은 저를 격려하며 법을 외우면 좋은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련생이 이토록 친절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것을 보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법공부를 마치고 '전법륜' 제1강을 외웠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외울 만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법을 외우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건 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태한 집착심이 빚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은 수련인이 버려야 할 마음이 아닌가? 저는 반드시 관념을 바꿔야 함을 인식했고 저를 가로막는 그런 관념들을 제거한 후 법 외우는 것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법을 외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법공부를 한 후 저 스스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학력도 낮으며 법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 속에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속에서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제가 안으로 찾았을 때 비로소 제가 속인 속의 안일한 삶이나 몸에 병이 없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하고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수련이 아니다. 하지만 수련 중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점차 인식하여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집착인가?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관념을 양성했으며, 관념에 이끌려 동경하는 것을 추구한다."(정진요지 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이 단락의 법을 통해 저는 수련인으로서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을 대법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하고 '진선인' 표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자신을 잘 닦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진상을 알리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아 저는 창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바

람이 세게 불어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에어컨 버스라서 창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잘못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분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는 수련인인데 어찌 일반인과 시비를 다툴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련인이여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찾으라 갖가지 사람 마음 많이 제거하고 큰 고비 작은 고비 빠뜨릴 생각 말라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 다툴 게 뭐 있느냐” (홍음 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수련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맺음말

제가 수련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고 대법의 표준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다그쳐 법을 잘 배우고 자신을 잘 닦으며 사람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사명을 더 훌륭히 완수해 합격된 대법제자가 되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의 구도지은(救度之恩)에 삼가 절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생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각종 사람 마음의 장애를 돌파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수련생 안녕하십니까!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열릴 즈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착실히 자신을 수련하고 제고한 심득체험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저는 성격이 비교적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진상을 알리거나 장을 보면서 점원에게 알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루 종일 해도 몇 명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수련생들이 대형 종합병원에 가서 진상을 알려 2~3시간 만에 10여 명에서 20여 명을 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는 수련생에게 저도 데려가 달라고 했고, 이렇게 병원에서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1.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각종 사람 마음의 장애를 돌파하다

첫날, 수련생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니 사람이 정말 많았고, 외래 진료부만 7층 건물이었습니다.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안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층마다 의자가 여러 줄 있었는데 거의 환자로 꽉 차 있어서 기차역 인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곳에는 진상을 알릴 대상이 정말 많으니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앉아보았지만, 도무지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어떻게 화제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붉은 완장을 찬 보안 요원, 무장경찰, 진압경찰들이 삼삼오오 눈앞을 오가는 것을 보니 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세 1시간 남짓 지나갔고, 저를 데려온 수련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A 수련생은 벌써 16명을 권퇴시키고 집에 갔어요.” 병원 안이 비교적 덥기도 했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땀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1시간만 더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아직 한 명도 구하지 못했네! 자칫하면 오늘 오후를 허탕 치겠어. 이럴 바엔 집에서 오후 내내 법공부하는 게 얻는 게 더 많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빈손으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마음이 몹시 언짢았고,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졌으며, 다른 수련생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못했는지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할까 봐, 나를 상대하지 않을까 봐, 체면을 구길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허영심이자 근본적으로 명(名)에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왔다 갔다 순찰하는 보안 요원, 무장경찰, 진압경찰이 들을까 봐, 신고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생이 1시간 남짓 만에 16명을 탈퇴시키고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조급해져서 땀을 흘린 것은 중생이 구원받지 못해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 숫자를 추구하고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 마음이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를 허탕 칠까 봐, 시간을 낭비할까 봐 두려워한 것은 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작용한 탓이었습니다.

이런 집착을 찾아낸 후 저는 법을 베껴 쓰고, 법을 외우고, 발정념하는 강도를 높였으며, 오직 대법만이 이런 사람 마음을 제거하도록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발정념으로 자신을 청리(淸理)할 때, 저는 이런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겨냥해 청리했고,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닦아버리려 했습니다.

비록 첫날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이 병원은 진상을 알리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았고 순박한 시골 사람도 많았는데, 모두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자들은 모두 그곳에서 CT 결과, 엑스레이 사진, 검사 결과 등을 기다리느라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고, 남는 시간에 서로 잡담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소통만 잘하고 대화가 통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가 진상 알리는 것을 들을 시간이 있었고, 또 꿰뚫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알리기로 결심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5~6일 정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3명만 탈퇴시킬 때도 있었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고 숫자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을 구하더라도 하나의 소우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의 천체를 구하는 것이며,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중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몇 명이라도 더 탈퇴시키고 싶은 마음에 아주 일찍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짓 지나도록 여전히 한 명도 탈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조급한 마음, 숫자를 추구하고 결과를 추구하는 마음이 또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일념을 발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멸(滅)하자.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텅 비게 되어, 오직 인연 있는 사람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하게 변하자 사람들도 기꺼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며 웃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순수해지자 주변 환경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 후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7~8명을 권퇴시켰습니다.

2. 중생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적절한 화제를 찾다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진상을 알리는 접근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게 말을 건네어 소통을 이끌어내면, 상대방은 제 말을 기꺼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아를 내려놓고, 체면을 중시하는 허영심을 내려놓았으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사진만 누르면 짧은 영상이나 드라마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상대방에게 몇 마디 인사를 건네도 상대방은 마치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루는 제 옆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눈도 깜빡이지 않고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 뭘 보고 있어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네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네요! 국민만 고생이지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제 쪽으로 조금 옮기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포화가 하늘을 찌르는 것 좀 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천상(天象)

의 변화가 가져온 하나의 상태입니다. 즉, 이 지역의 업력(業力)이 커져서 하늘이 전쟁을 통해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큰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것 역시 하늘이 사람을 도태시키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하거나 붉은 스카프를 맨 적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입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늘에 탈퇴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알려주신 것인데, '삼퇴를 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세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있든 무사하고 상서로울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힐끗 보기만 해도 그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아저씨, 언니, 젊은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등으로 부른 다음, 병세를 묻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워 하루 만에 진료를 끝내는 사람이 몇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한 후 저는 곧바로 진상을 알리는 화제로 들어갑니다. 진상을 알릴 때는 옆에 앉은 사람의 나이, 교육 수준, 신분 등에 맞춰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제 옆에 6~70대 정도 되는 분이 앉아 계시면, 저는 말합니다. "여기서 CT 결과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가 말합니다. "네." 제가 말합니다. "검사 끝난 지 몇 시간이나 됐나요?" 그가 대답합니다. "이제 1시간 남짓 됐어요." 제가 말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결과가 나오면 빠른 편이네요. 이 병원은 사람이 많아서 CT 결과는 보통 3~4시간은 지나야 나오거든요." 그가 말합니다. "맞아요, 너

무 느리네요.” 저는 그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병원이 진료를 꽤 잘 보는데 다만 사람이 좀 많아서 그래요.”

이어서 저는 또 묻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가 대답합니다. “68세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다들 문화대혁명 때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라 글도 별로 못 배우고 맨날 비판 투쟁 대회만 열었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붉은 스카프도 매고 공산주의청년단에도 가입하셨죠?” 그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다 했죠.” 제가 말합니다. “공산당이 3반(三反), 5반(五反), 반우파, 문화대혁명 등 각종 정치 운동을 일으켜 평화로운 시기에 중국인 8000만 명을 박해해 죽였는데, 이는 두 차례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사람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늘이 그것을 멸하려 하기에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순장품이 되지 말고, 마음속으로 신불(神佛)과 하늘에 대고 그 조직에서 탈퇴해서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공산당과 선을 그으면 어떤 재난도 우리와 무관해질 것이니, 무사한 것이 바로 복이지요.” 그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물을 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꺼리는데, 저는 곧바로 그에게 상서로운 가명을 지어주며 삼퇴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본명을 말하면 저는 본명으로 탈퇴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불법(佛法)이며, 평소에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자주 외우면 신불의 가호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파룬따파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고, 대만과 홍콩에서도 많은 사람이 연마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며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을 꾸며내어 파룬궁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를 선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력과 시간 상황에 따라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의 의문점과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기적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은 진상을 들은 후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매우 중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꼽으며 저를 따라 한 번씩 외우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 녹음기를 켜며, 어떤 사람은 제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노인은 제게 종이에 적어 달라고 하며, 집에 가서 손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외우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단순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며, 초등학교 3~4학년 학력에 소년선봉대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소년선봉대는 공산당 조직이고 모두 무신론 조직에 속하니, 무신론의 낙인(짐승의 표식)을 지워야만 신불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리면 재난을 만나도 상서로움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은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말합니다. "이런 부처에서 일하시니 분명 당원이시겠네요?" 그가 말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말합니다. "공산당의 시조인 마르크스는 사탄교도였고, '공산당 선언' 서두에도 하나의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에 가입할 때 주먹을 쥐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며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선서하셨는데, 그것은 악마에게 선서한 것과 같으니 악마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맹세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는 염황의 자손이지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손이 아닙니다. 탈퇴하세요, 필명이나 아명, 가명을 써도 다 됩니다. 현재의 생활과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중화의 자녀가 되어야지,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신주(神州) 대지이고,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탈퇴해서 신불의 관할로 돌아오시면 병도 빨리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삼퇴를 합니다.

시간이 나면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데, 그러면 그들은 "해외여행 갔을 때 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많이 외워보세요. 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려주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컨대 진상을 알릴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화제를 찾으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적 상황과 상대방의 이해력에 따라 조금 더 자세히 알릴 수도 있고, 조금 간단히 알릴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아 먼저 그에게 삼퇴를 시키고, 나머지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면 됩니다.

물론 탈퇴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말다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위해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묵묵히 자리를 뜨며, 자비를 상대방에게 남겨두어 그가 다시 진상을 들을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3. 자비심이 생겨나자 삼퇴 인원수가 배로 늘다

한번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한 무더기의 약을 들고 안내 데스크로 와서 책상 위를 보고 또 아래쪽 두 번째 칸을 살펴보는 것을 보았는데, 필름을 담을 큰 비닐봉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비닐봉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담아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걸 찾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둘 곳이 없어 보여서요.” 그녀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새댁, 이렇게 젊은데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녀는 병명을 하나 말했는데 아주 특이해서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 병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그저 시도나 해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 약값만 해도 1천 위안이 넘게 들었는데, 제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오빠와 언니가 내준 돈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새댁, 조급해하지 말고 아주머니가 신기한 방법 하나를 알려줄게요. 바로 진심으로 공경히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고, 가입했던 중공의 공산주의청년단과 소년선봉대 조직에서 탈퇴해서 삼퇴로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또 주머니에서 100위안을 꺼내 그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큰 도움은 못 주지만, 이 100위안을 가지고 이틀 동안 뭐라도 좀 사 먹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살길이 열린 거예요.” 여성은 기어코 돈을 밀어내며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오늘 알려준 좋은 일을 꼭 기억해요, 절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억할게요.”

사람들의 온갖 고통스럽고 괴로운 표정을 보니 제 마음에 자비심이 절로 우러나왔고, 이들 역시 고층 공간에서 왔고 사부님의 가족이며 파룬따파의 제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단지 이 현실 사회에 미혹되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 그들을 일깨워, 그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천국 세계로 돌아가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비심이 나온 후,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삼퇴를 권하는 일도 물이 흐르면 자연스레 도랑이 생기듯 순조롭게 이뤄져서 때로는 3~4마디만 해도 상대방이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자비의 거대한 에너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상을 알린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겁내고 주눅 들던 모습에서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변했고, 빙빙 돌려 말하던 것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것으로 변했으며, 0에서 시작했던 첫날을 지나 하루에 많게는 13~4명을 구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제자가 수련하는 길의 매 걸음은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일깨움과 떨어질 수 없기에, 그 과정에서 저는 늘 사부님께 인연 있는 사람을 제 옆에 앉혀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전법륜(轉法輪)’을 두 번 베껴 썼고 세 번 외웠는데, 진상을 알리는 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더욱 영성이 생겼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성취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에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귀진(歸眞)

[명혜망]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해보려 하며, 제가 수련하며 심성을 높인 과정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슨 일에 부딪히든 법에 따라 수련하기만 하면 대법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1. 남편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해지다

저와 남편은 모두 농민으로 지금은 둘 다 50대가 됐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이미 가정을 꾸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저희 마을에 널리 전해졌을 때 남편도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쁘게 법을 얻었고, 대법 서적을 들고 읽었으며, 즉시 술담배를 끊고 노름도 하지 않았으며, 때리고 욕하는 나쁜 성미도 고쳤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향 정부와 공안국이 민병대대 인력을 규합해 집으로 찾아와 불법 가택수색과 약탈을 하고 사람을 잡아갔는데, 밭에서 일하던 수련생들까지 모두 납치돼 갔습니다. 남편은 두려워져서 수련을 포기했지만 줄곧 제 수련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나 구세력은 여전히 그에게 마수를 뻗쳤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길을 건너다 질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혀 쓰러졌고, 즉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머리에 대량 출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진단 결과는 중증 폐쇄성 두뇌 손상, 양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등이었습니다. 저희는 두개골 절개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호흡과 가래 배출을 돕기 위해 기관 절개

삽관만 했습니다.

대략 열흘쯤 뒤에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혼수상태로 잤고, 위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주입하며 영양을 보충했으며, 비록 가끔 눈을 뜨고 손발에 약간의 감각이 생기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당시의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재활 치료비가 하루 3000여 위안, 간호비가 300여 위안, 간병인 비용이 100여 위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병원의 권유에 따라 이 큰 병원에서 모자보건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했습니다.

모자보건원에서는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하루 약값만 해도 1000여 위안이 들었고, 간호비와 간병인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 달 남짓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혼수상태로 잤고, 코로 위관을 꽂아 음식을 먹고, 기관 절개관을 꽂아 가래를 뽑아냈으며, 몸을 움직이지 못해 조금의 회복 진전도 없었습니다.

입원한 지 겨우 두 달 남짓 만에 저희는 거의 20만 위안을 썼는데, 수년간 채소를 심어 팔며 모은 저희 집 전 재산을 다 써버린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지 않았기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다 저희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빚을 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입원할 능력이 없었으며, 남편의 회복 가망도 없었기에 저희는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치의는 완강히 퇴원을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퇴원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합니다. 게다가 간호할 줄도 모르니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응급처

치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집에 모셔 가요. 엄마가 좀 도와드려서 기회를 줘요.” 저는 대법제자이고 제 가족, 친척, 친구는 모두 속인이기에, 만약 제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 대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버지를 집에 모셔 가자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기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2. 열흘도 살 수 없다던 사람이 살아나다

의사의 강력한 만류에도 저희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의식이 없는 남편은 콧구멍에 위관을 꽂고 목에는 기관 절개관을 꽂은 채 집으로 실려 왔습니다.

20여 일 뒤, 제가 뇌전증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에 가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는요? 좀 나아지셨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 나았어요.” 의사는 대번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 나았다고요? 기적이네요! 위관은 누가 뽑았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뽑았어요.”

의사가 또 물었습니다. “기관 절개관은 어디서 빼셨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뺐어요.” 의사는 재차 놀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걸 감히 직접 빼셨다고요? 기적이네요! 지금 남편분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요.” 의사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옆에서 저희를 잘 아는 간병인들도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3. 대법의 위력

의사가 열흘도 살지 못한다고 단언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 살아났는데, 이것은 대법의 위력이고 제가 법 안에서 수련해 심성을 높인 후 대법이 보여준 신성하고 아름다움입니다.

1) 무슨 일에 부딪히든 법에 따라 수련하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고 한 순간 몹시 초조하고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부님 법이 생각났습니다.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당신이 어떻게 가늠하는지 하는 것인데,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는 바로 이처럼 어렵다!”(전법륜)

저는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은 병원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지나친 걱정은 집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구할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만약 사악이 가족의 교통사고라는 이 고난을 이용해 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휴가를 내고 돌아와 주도적으로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먼저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한 후, 병원에 가거나 집에 가서 양과 닭에게 먹이를 주고 남편이 남겨둔 일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둘째 올케(수련생)와 함께 병원에 갈 때면 법을 외워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가정의 고난을 빌미로 제가 중생을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다른 공간의 모든 사악한 교란을 제거하도록 정념을 발했습니다.

2) 자비심을 닦아내다

남편이 퇴원해 집에 돌아온 후, 딸은 일주일간 간호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간호하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됐는데, 매일 갈아 만든 유동식을 코로 주입하고, 기관 절개관을 갈아주고 씻기고 소독했으며, 끊임없이 가래를 뽑아내고 배출시켰고, 소변 주머니와 기저귀를 갈아주었으며, 몸을 뒤집고 닦아주기 등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소변 주머니를 뜯어내 침대에 소변을 흘렸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막 갈아주었는데 또 뜯어버려서, 어떤 날은 침대 시트만 네 번을 갈기도 했습니다.

그는 몸 뒤집기에 협조하지 못해서 침대 시트를 갈거나 그를 옮기려면 무척 큰 힘이 들어 저를 너무 지치게 했습니다. 때로 그는 기저귀를 뜯어내고 침대에 대변을 본 뒤 또 손으로 긁어 온몸과 두 손에 다 묻혔고, 얼굴에까지 대변이 묻기도 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났으며, 치우려면 지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쪽을 다 치우지도 못했는데 또 '그렁그렁'하며 가래 끓는 소리가 나서 또 가래를 뽑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을 돌봐달라고 불렀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딸이 간호할 때는 이토록 번거로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어받자마자 이런 모습이니 마치 고의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허리가 시큰거리고 등이 아파서 있을 수도 없고 허리를 펼 수도 없었으며, 아직 처분하지 못한 가축들 먹이도 줘야 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고 지치고 짜증이 났으며 화가 나고 미워서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고, 정말 남편을 한 대 세게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마성이 갈수록 강해질 때 저는 이 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수련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일은 다 인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배치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곧 만나지 못한다. 그것이 당신의 수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의 수련과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되도록 배치하지 않는다.”(전법륜법해-광저우 설법 문답 풀이)

사부님 법은 제게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이 수많은 번거로움이 제 수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게 어떤 마음을 닦아버리라는 것일까요? 저는 안으로 찾아서 먼저 원망심을 찾아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과 마주치자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갈수록 강렬해진 원망심이 제 마성을 크게 폭발하게 해 사람을 때리려는 악한 생각까지 품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쉴 새 없이 스스로를 억제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이니 이러면 안 돼.’

제가 밖에서 사람을 구해 중생이 도태될 위험을 면하게 하려 할 때 자비심을 품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남편을 간호하는 이 일에서도 자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제자는 모든 일을 법으로 가늠하고, 무슨 일에 부딪히든 법에 따라 수련합니다. 법의 지도가 있자 제 마음은 단번에 안정됐고 탁 트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여러 가지 소중한 장점들이 제 눈앞에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수련을 포기했지만 줄곧 제 수련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알리려 베이징에 두 번 청원하러 갔고 여러 차례 불법 구금됐으며, 불법 강제노동을 세 번 당했습니다. 불법 구금될 때마다 구치소에서는 저희 파룬궁수련생에게 하루 20위안의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갈취당한 그 돈은 모두 남편이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2000년 4월 어느 날, 둘째 오빠네 가족이 모두 초상집에 가느라 외출해서 제가 그들 집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무렵, 파출소 경찰 3명이 마을 간부 집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문을 두드리며, 둘째 올케가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고 우기면서 제게 사람을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내놓지 않으면 저를 잡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거칠게 방문을 걷어차고 뛰어 들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남자 셋이 여자 하나를 끌고 가는 건 온당치 못하니, 무슨 일이든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 경찰이 총으로 제 남편의 가슴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쏴 죽이겠다.” 경찰은 저를 이리저리 끌고 밀치며 강제로 납치해 가더니, 15일간 불법 구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다시 베이징에 올라가 청원했습니다. 도중에 차단되어 돌아온 후 저는 구치소에 몇 달간 불법 구금됐습니다. 그 기간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경찰, 마을 간부, 향 정부가 강도질하러 와서 저희 집의 텔레비전, 선풍기, 분쇄기, 설 쇠려고 준비한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한 덩이와 돼지기름이 가득 찬 큰 단지 하나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남편이 고기와 기름은 놔두라고, 저희가 설을 쇠기 위해 남겨둔 유일한 명절 음식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물건을 빼앗아 의기양양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딸은 공포 속에서 처참한 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불법 강제노동을 2년 선고받았습니다. 중공 노동수용소 검은 소굴에서 저는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확고히 지키며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혹형과 고문을 당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박해 속에서도 정념을 확고히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몹시 감탄했

습니다. 제가 2년의 불법 강제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폭죽을 터뜨리며 맞이했고 또 술상을 몇 상 차려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후 저는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갔고 아이 학비를 벌기 위해 상가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경찰이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와 교란하는 바람에 저는 몇 번이나 고용주에게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서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때 제 고향은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저는 오랫동안 시내에 방을 얻어 살며 사방에서 요리사, 아이 돌보는 보모, 노인 간호, 청소 등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며 사람을 구하러 다니려면 차비가 들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멀어 차를 세 번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었고, 오가는 차비로 수십 위안이 들었습니다. 저는 먹고 자는 것이 모두 아주 단출했고 빌려 사는 집은 텅 비었으며 생활용품은 전부 주워 온 것이었고, 배가 고파도 식당에 들어가 국수 한 그릇 사 먹기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공 악당이 파룬따파를 박해해 대법제자의 가족도 심각한 박해를 당했고, 그들이 묵묵히 거대한 고난을 감내한 내면 깊은 곳의 고통을 과연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 몇 년간 제가 계속 밖에서 일하면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을 남편이 이해하고 지지해 준 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 마땅히 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사부님의 법은 제자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끌어 주셨고, 제 생각은 바르게 됐으며 자비심이 우러나와 눈앞에 처한 감당하기 힘든 번거로움에 직면해서도 저는 원망과 미움이 없어졌고 갈수록 온화해졌습니다. 수련인은 무슨 일에 부딪히든 법에 따라 수련해야 하듯, 제 심성은 높아졌고 경지는 승화했습니다.

3)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하다

이 갑작스러운 가정의 고난과 갑자기 늘어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중압감은 한때 제 심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법공부하고 연공할 시간과 기력이 없어 며칠 동안 '전법륜(轉法輪)' 몇 쪽도 읽지 못했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구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해 이런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사부님 법이 생각났습니다. "구세력은 모든 대법제자에 대하여 그것들의 것을 한 세트 배치하였는데, 만약 대법제자가 사부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바로 틀림없이 구세력의 배치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정진요지 3-청성) "물론 구세력이 배치한 이 일체를 우리는 모두 승인하지 않으며, 나, 이 사부가 승인하지 않으므로 대법제자도 당연히 모두 승인하지 않는다."(각지 설법 4-2004년 시카고법회 설법)

남편이 침대에 누워 의식이 불분명한 채 먹고 마시고 배설하며 수많은 번거로움을 일으킨 것은 그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니 그도 무척 불쌍하며, 구세력이 배후에서 남편을 조종해 번거로움을 일으켜 고난을 더하고 가중해 그도 박해하고 저도 박해하며 제 시간, 에너지, 재력을 소모해 대법제자가 사람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전면 부정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관할하시고 수련에 부족함이 있으면

법에서 심성을 높일 것이니, 구세력은 저를 관할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고 동시에 정념을 더 강력하게 발해 남편 배후의 사악한 마귀와 난귀(爛鬼)를 제거했습니다. 저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구세력의 모든 안배를 부정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여 법 안에서 수련해 심성이 높아지자 뜻밖에 놀랍고 기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 위관과 기관 절개관을 빼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어찌 된 일인지 위관을 빼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긴 거무스름한 관을 보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딸에게 전화로 알렸고 딸도 몹시 초조해했습니다. 다시 관을 꽂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집은 병원까지 길이 멀고 집에서 큰길까지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이 한 구간 있어서,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저와 수련생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고, 제 남편은 마땅히 위관을 뽑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다시 위관을 꽂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갈아 만든 영양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이며 남편이 정상적으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가 사레들려 기침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조심스레 먹이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했습니다. 먹이다 보니 그가 졸아서 저는 참을성 있게 그를 깨워 계속 먹였습니다. 한 시간가량 영양식 반 공기를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몇몇 수련생이 제 남편과 함께 법공부했는데 저희가 읽고 그는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한바탕 기침하더니 기관 절개관의 안쪽 관을 기침으로 토해내 끝부분 한 토막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사부님께서 관을 뽑으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으니 기운이 생겨 가래를 뱉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기관 절개관의 안쪽 관과 바깥쪽 관을 모두 빼내고 절개 부위를 소독한 후 운남백약 밴드를 붙여 절개 부위를 밀봉했습니다. 며칠 후 절개 부위는 자연스럽게 아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관 절개관에서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 가래를 뽑아내야 했고, 조금만 늦어도 막힐까봐 걱정했습니다. 기관 절개관을 빼낸 뒤로 남편은 오히려 기침하지 않았고, 가래가 끓거나 가래를 뱉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직접 관을 뽑으셨습니까?" 저는 사부님께서 바로 제자들 곁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조심스레 처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편에게 저와 함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묵념하자고 했고, 관은 순조롭게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서서히 그를 부축해 기대어 앉힌 후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게 했습니다. 의사가 열흘도 못 산다고 판정했고 온종일 누워 죽기만 기다리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지 20여 일 만에 혼자 일어나 바닥에 내려오고 스스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 가지 일을 잘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쁜 것은 남편이 앉아서 저희와 함께 법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가 법공부 속도를 아직 당분간 따라오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기사회생하여 대법과 인연을 다시 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늘 대법 진상 시청각 자료를 듣고 보며, 법공부 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는 체중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고 피부가 고우며 혈색이 좋아, 비록 말수는 적지만 사람을 보면 싱글벙글 웃어서 누구나 그의 안색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매일 밖으로 나가 여러 곳을 돌며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해 사람을 구합니다. 점심에 제가 늦게 귀가해도 그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어 제 걱정을 끼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뇌전증 약을 이미 끊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뇌전증은 다시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은 파룬따파의 위력이자, 대법제자가 수련해 심성을 높인 후 대법이 보여준 신성하고 아름다움입니다. 대법이 가리키는 길은 한없이 밝습니다. 제가 법에 따라 수련하기만 하면 첩첩이 쌓인 난관을 모두 넘어서고 원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존에 대한 끝없는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는 오직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자신의 사전(史前) 서약을 실천해야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남편과 함께 사존께 절을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진퇴양난일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하며 마음을 닦아 승화하다

글/ 중국 장시성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6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올해 77세입니다. 수련생들의 수련 체험 글을 볼 때마다 늘 깨달음을 얻어 교류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 평범해 쓸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련생의 격려로 이번에 저도 수련 체험을 써서 사존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처음 대법을 얻고 대법의 신기함을 느끼다

저는 심장병, 류머티즘성 관절염, 위장병 등 여러 질병을 앓아 42세 때 병가로 퇴직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던 시기에 기쁘게도 파룬따파를 얻었습니다.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갖 질병이 사라졌고, 병 없이 몸이 가벼워졌으며 얼굴빛이 붉고 윤기가 돌아 사람들이 10년은 젊어졌다고 감탄했습니다.

당시 연공장에는 노인 수련생이 비교적 많았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직장인이어서,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위해 대법서적 구입 등을 도왔습니다. 한번은 여러 사람이 대법 자료를 사려고 낸 약 2000위안을 잘 챙겨 작은 가방에 넣은 뒤 다시 큰 배낭에 담았고, 그 배낭을 자전거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뒀습니다. 채소 시장을 지나다 수박을 파는 곳이 있어 자전거를 수박 천막 옆에 세우고, 돌아서서

수박을 하나 들고 무게를 달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배낭을 가지러 가보니 배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할수록 속상해 거의 소리 내 울 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사부님 법상을 보니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비롭고 상서로운 따뜻한 기류가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으며, 곧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부님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문제와 마주치는가? 모두 당신 자신이 빚진 업력이 조성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서 무수하고도 무수한 몫을 없애주었다.”(전법륜)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니 저는 이런 방식으로 빚진 업을 갚은 것입니다. 단번에 이해하고 마음을 내려놓자 기분이 매우 즐거워졌습니다.

수련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추구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 오직 온몸이 가벼워지는 상태에 도달하기만을 바랐지만,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수십 번 들어도 이런 상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마음이라 추구할수록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뒤 이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자전거를 밀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 ‘전법륜(轉法輪)’ 책을 담은 큰 상자를 실어 자전거를 타면 불안정해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두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을 수 없고 두 발도 땅에 닿지 않아 자전거와 사람이 모두 공중으로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추진력이 이토록 강하니 마음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후 평온해지자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내가 여러분의 신체에서 좋지 않은 것을 떼어버린 다음, 우리 대다수 사람이 몸이 가뿐하고 신체가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전법륜) 제가 겪은

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온몸이 가벼워 위로 떠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은 정말 신기합니다!

2. 착실한 수련 중에 남편에 대한 원망심을 없애다

결혼하고 몇 년 뒤 남편은 업무 관계로 자주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고 밤에도 아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줄곧 그랬습니다. 저는 일찍 가정을 이뤄 20세에 결혼했고 30세에는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라 우리는 줄곧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심할 때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 국과 약을 떠먹여 드려야 했고,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했습니다.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세 아이를 돌보면서 노인 간병까지 해야 했기에, 끝없이 신경 써야 하고 끝없는 집안일에 시달린다고 느껴 자주 기진맥진할 정도로 지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가족과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원망했고, 마음이 몹시 괴롭고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수련 후에도 남편에 대한 원망심은 줄곧 없어지지 않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치밀어 오르면 그와 다퉜습니다. 다툴 때도 제가 수련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가 욕하면 저도 욕했고, 그가 한마디 욕하면 저는 두 마디 욕을 하며 그가 화나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야 끝냈습니다. 남편은 “당신은 수련인 같지 않아”라고 했고 “나는 당신 수련을 도와주는 거야”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집착심이 너무 강해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는 말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2년 가까이 이어졌고 저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다투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여겼고 다툰 뒤에는 온 가족이 다시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다투고 난 뒤 저는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면 또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수련인임을 다시 잊은 채 자신을 속인과 똑같이 만들어버려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주 사부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하며 고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제고하지 못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한동안 참다가 결국 또 다투고 말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이 있기 때문인데, 화를 냄도 정이요, 기뻐함도 정이요, 사랑함도 정이요, 증오함 역시 정이요, 일하기 좋아함도 정이요, 일하기 싫어함 역시 정이며, 누가 좋고 누가 나쁘게 보이며, 무엇을 하기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일체가 다 정이라, 속인은 바로 정을 위해 산다.”(전법륜)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심이 정이고, 제가 정에 둘러싸여 시달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에 얽매이고 끌려다녀 수련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을 내려놓아야만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비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모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윤회 속에서 제가 예전에 그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으니 지금은 제가 갚아야 합니다. 심성이 높아진 후, 남편이 저를 돕고 저를 성취시켜 주고 있음을 깨달아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원망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후유증이 남아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그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도왔습니다. 그는 “파룬따파는 좋아! 대법을 수련하는 아내가 있다는 게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라고 말했습니다.

3. 사람 마음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을 닦아 없애고 정법의 길을 당당하게 걷다

저는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가 억울하게 파출소에 모함을 당했고 병업 고비 가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파출소에 제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요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모두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어느 날, 파출소 경찰이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제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이건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협조해선 안 돼요.”

파출소 경찰은 제 아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제 ‘취보후심’ 보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다급해하며 가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며 만약 법원에 가지 않으면 큰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고,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딸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가족이 이토록 몰리는 것을 보고 저는 사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악한 짓이든 다 저지를 수 있어.’ 몇 년 전, 악인들이 저를 찾지 못하자 실제로 작은아들을 구치소에 일주일 동안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큰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법원에 가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박해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저는 이틀 동안 집을 떠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며칠 동안 이 일을 알게 된 수련생들은 모두 각자 힘을 다해 저를 도왔습니다. 정념을 발해 주는 수련생도 있었고, 법원에 진상 전화를 거는 수련생도 있었으며, 우리집에 와서 가족에게 진상을 알리고 위로해 주는 수련생도 있어 다른 공간의 사악을 힘 있게 제거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하고 정념을 발하며 안으로 찾았고, 공간장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하늘이 맑아지며 몸이 투명해져 사악이 소멸됨을 느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정진요지 2-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

저는 법원에 가는 것이 곧 사악에 협조하는 것이며 박해를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구세력의 안배를 전면 부정하고 오직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아들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가족에 대한 정을 무겁게 여긴 것은 모두 사람 마음, 사람의 정, 사람의 생각으로서 수련인이 닦아 없애야 할 사람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성이 높아지자 저는 가족 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흘째 이른 아침, 저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차에 앉아 저를 찾으러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모두 아주 기뻐하며 “우리 바람이나 쐬러 나가요”라고 즐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엄마는 사부님께서 관할하시니 안심해라!”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법공부를 마친 뒤 이어서 강력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사악한 불법 재판을 해체하라.’ 이튿날 이른 아침, 법원에서 남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저에 대한 한 차례 박해가 해체됐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30년 가까운 수련의 길을 돌아보면, 매 걸음을 모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걸어올 수 있었고 모든 시련은 대법의 법리 속에서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100%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어, 원만하여 사부님을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여한 항목 중 하나는 에포크타임스 예술 기사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글 뒤에 숨어 감정을 표현하고 여유롭게 조용히 정리하며 당장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마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게는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께서 알림장에 수업 시간에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고 자주 적으셨지만, 일어나서 본문을 읽으라고 하시면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웅변대회나 무대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이 누구든 얼굴을 맞대고 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한다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죽어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을 얻은 후 친구들은 제가 많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고 너그러워졌으며, 일할 때 낯선 고객과 영어로 대화하고 브리핑하며, 해외 출장 시 크고 작은 일을 소통하고 업체와 교섭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기껏해야 한 번 웃고 다시 하면 될 뿐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말을 잘못할까 두렵고 대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됐으며,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수련생들 앞에서 마음을 열고 교류할 때면 종종 두서없이 말하고 저도 모르게 떨었으며, 나중에는 발언 내용을 반복해서 검토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런 긴장의 근원은 허영심, 과시심, 쟁투심이었으며, 모두 제거해야 할 집착심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나가서 션윈을 홍보하기 위해 억지로 1급 인증에 참가했습니다. 그 후 수련생들이 주(主) 강사 인증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을 때 또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렸습니다.

명백한 일면은 속으로 '일을 위해 낯선 고객 앞에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중생을 향해 션윈을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신성한 임무인가, 더욱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련생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고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뭔가 책임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중리(中壢) 지역 협조인 수련생이 곧바로 찾아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에 소규모 설명회에 가서 주 강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작은 시험이 다가올 줄 몰랐기에 당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련생의 좌절감과 무력감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수련생이 정말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무대가 세워지고 관객이 입장했는데 도망치면서 속으로 '출근해야 하니 어쩔 수 없잖아'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깊이 파헤쳐보면 명리심(명예와 이익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빈번한 휴가로 사장에게 질책받고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대에 올라 너무 긴장해서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참석자들이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온갖 사람 마음이 사람을 구하는 기회 앞에서 스스로 장애가 되게 했습니다.

올해가 되자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먹을 쥐고 스스로 힘내자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네이리(內壢) 법공부 팀에서 법공부와 교류를 한 후 2급 주 강사를 통과한 모든 수련생이 남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법공부 교류 시간을 선택해 주 강사 수련생들이 번갈아 가며 무대에 올라 예행연습을 하며 숙련도를 높이고 담력을 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협조인 수련생은 시간을 내서 함께 예행연습을 하겠다고 거듭 위로했습니다.

이런 좋은 뜻이 제 귀에는 오히려 청천벽력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수련생은 아마 제 얼굴이 순식간에 찐빵처럼 구겨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두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는데 마지막 번호를 뽑고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련생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선의의 도움과 대조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약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겹겹의 사람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기에 태산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잘하고 싶으면서도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다 보니 조급해지고 낙담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몇 년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힘내자고 하지 않았나? 사부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수련생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데 오히려 달갑지 않아 하는구나'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하신 설법이 떠올랐습니다.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心性(씬씽)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체현해 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살인 방화하는 것마저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상관할 것인가?"(전법륜) 당시에는 사부님께서 이 단락의 법으로 일깨우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법공부 팀에 가서 각지 설법을 배우며 사람들을 따라 먼저 '논어'를 한 번 외웠습니다. "그에 동화하면 당신은 바로 득도자(得道者) —— 신(神)이다"(논어)라는 마지막 구절을 외울 때, 머릿속에는 갑자기 '전법륜' 제1강의 설법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으로서 우주의 真(쩐)·善(싼)·忍(런), 이 특성에 순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이고, 이 특성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쁜 사람이다."(전법륜) 저는 갑자기 사부님께서 이 세 단락의 법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것과 수련의 엄숙함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중생이 모두 미혹 속에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션윈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시고 고심하며 길을 닦아주셨는데, 이는 바로 대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중공 악당이 전 세계에서 각종 유무형의 '살인 방화'를 저지르며 중생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배후의 층층 생명을 훼멸하고 있는 동시에 저는 다행히 대법을 얻었고, 심지어 진상과 션윈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까지 생겼지만 오히려 우주 특성 '진선인'에 따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 동화하면'이라는 세 글자는 능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도 능동적이지 않아 수련생이 끌어주어야만 하는데,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길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를 구해야 할 중생 위에 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홍수가 닥쳤을 때 목숨만 구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은 큰 재난이 닥친 줄 모르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워 침묵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에 어떻게 선(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대법제자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슬펐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3년간 오락가락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사람을 구하는 엄숙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마음을 가득 품고 편안한 구역으로 숨어들어 제자리걸음만 했습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사부님과 대법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구하는 사명과 그 엄숙함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었을까요?

정수리를 내리치는 듯한 이 큰 깨우침은 제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고, 사부님의 일깨움은 제 물러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자아'가 가져온 두려움의 가상을 걷어내고 정법시기의 엄숙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념이 솟아올랐고 사부님께서 많은 용기를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은 부분은 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어떤 수련생이 "어떤 항목을 하고 싶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급 인증 과정에서 수련생의 지도를 통해 무용 동작의 표면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화목란(花木蘭)이 효심을 표현하는 몸짓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인증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고 실행하면 과거 현대 관념에 가려졌던 생각을 돌파하고 전통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기보다 차라리 바로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주변 사람들에게 션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려주려 할 때 자신도 전통의 아름다움 속에 녹아들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대법제자가 하나의 송신소라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에 전통의 선량함이 담겨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에 다가가고 싶다면 단지 매표 기간에만 션윈을 접할 것이 아니라, 매일 션윈이 제 생활의 틈새를 채우고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때 션윈쭤핀(神韻作品)은 좋은 무기가 됩니다. 션윈 교향악, 과거의 무용극, 성악, 심지어 관객의 피드백까지 모두 수년간 축적된 션윈의 정수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션윈의 음악, 색채, 춤사위, 의상을 음미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점을 거듭 발견하게 되고, 홍보에서 접근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번역한 예술 기사나 매일 에포크타임스를 훑어보다가 발견한 그날과 관련된 내용, 혹은 주변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화제로 삼아 진심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진상을 알리고 션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늘에서 온 이상 우리 생명의 가장 미시적인 곳에는 틀림없이 신전(神傳) 문화의 함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고정 관념을 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전통문화와 자신, 그리고 중생 사이에 벽을 쌓게 됩니다. 일련의 깨달음 이후 사부님께서도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브리핑 내용에 대한 구상을 갖기 시작했고,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생겼으며, 머릿속에 보여주고 싶은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브리핑 작성 능력을 매우 의심했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한 브리핑은 모두 회사 마케팅 부서 동료들이 만들고 원고를 외우고 연습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리핑 소프트웨어를 열고 빈 페이지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게 "지금 널 상대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착수해 제 구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려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해발 8800m의 히말라야산맥만큼 높았던 난이도가 서서히 183m 높이의 타이베이 샹산으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중생과 션윈을 나누고 싶다는 기쁨을 안고 한 페이지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소프트웨어 기능도 갑자기 어디를 클릭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련생들이 제공한 많은 기존 자원 덕분에 뜻밖에도 이틀 만에 브리핑 자료와 원고를 완성했는데, 이는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완성한 후 바로 여러 차례 예행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연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중생은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봄바람을 맞은 듯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장면이 그들에게 션윈을 긍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할까?' 브리핑 자료의 그림, 글자 위치, 페이지 전환 효과, 화면 색상을 끊임없이 조정했고, 원고도 계속 수정했습니다. 매일 연습한 후에는 큰 폭으로 수정했습니다.

수많은 중국 고전 소설에 건축, 음식, 장신구, 복식 등 전통문화의 세세한 부분이 묘사돼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중문과 출신인

저는 과거에는 늘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인내심을 갖고 자세히 감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작가들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바로 이런 소중한 전통문화를 기록하여, 옛사람들이 두 손으로 진심을 담아낸 '장인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 전통문화의 정수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를 감상하는 시각도 그에 따라 넓어졌고, 션윈 공연을 관람할 때면 언제나 더 많은 디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 션윈 예술가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연마한 손짓과 발짓 하나하나, 음표 하나, 의상 한 벌, 성악 한 구절 등 직접 공들인 이 세세한 부분들이 모두 머나먼 하늘에서 온 것이고 중생을 위해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만약 수련생이 무대에 오르라고 알린다면, 저는 틀림없이 컴퓨터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중생에게 션윈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글은 사부님께 지난 1년의 수련 심득을 보고하는 동시에, 저처럼 열심히 잘하고 싶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수련생들에게 '우리 함께 용감하게 내딛자!'라고 말하고 싶어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정체를 이루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진선인'에 동화된 24K 순금의 마음을 닦아낸다면, 반드시 여러 형태로 인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저의 수련 심득입니다.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대만 법회 원고)

얻기 힘든 이 수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글/ 미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로우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인 사회에서 수련하다 보면, 이따금 법을 얻어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잊곤 합니다. 과거에 잘해내지 못한 저희 같은 수련생들은 남은 매 순간의 수련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던 완고한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인내심이 강하시고 저희를 다독여 주십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련이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알려 주셨으며, 시련을 통해 저희가 나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패하거나 진전이 아주 적을 때도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며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동시에 저희가 반드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이란 서서히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신은 느슨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말한다. “스승님께서 수련은 서서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서서히 하자.” 그건 안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불법(佛法) 수련에서 당신은 용맹정진(勇猛精進)해야 한다.” (전법륜)

최근 몇 년간 저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을 수련의 기회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놓치고 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마치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유예 기간을 마련해 주실 수는 있지만, 이 기간 내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처지가 아주 험난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겪은 시련은 마치 경종과도 같았고,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련은 마치 구명줄 같아서 제가 깨어나 계속 수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고통은 확실히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수련할 기회를 내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력이 극에 달하다

저는 몇 년간 오랫동안 병업 고비를 겪었지만, 자신을 제고할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디기만 했습니다. 저의 주의식(主意識)도 흐릿해졌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수련 속에서 끊임없이 업력을 없애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안일에 대한 집착과 그 집착에서 비롯된 중독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업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업력과 관련해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흑색물질과 우리 우주특성은 격리된다. 만약 이런 흑색물질이 많아질 때면 그것이 인체 주위에서 장(場)을 형성해 사람을 에워싼다.”(전법륜)

제 주변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알면서도 주의식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업력장이 저를

법과 떼어놓았고, 제 행동은 집착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이런 짙은 안갯속 같은 상태에서, 저는 진정으로 안으로 찾아 병업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저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여기며, 고통을 인내하며 업을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한 시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몸의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했고, 두려운 나머지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담담하게 대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둥둥 떠다녔고, 만약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 선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멈출 수 없을 때면, 또 저 스스로 이런 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병원 치료를 자초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마음속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 이 시련들이 모두 제 잘못이며 저의 부족함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이것 역시 일종의 집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알려 주셨습니다. “당신이 수련 중에 어느 관(關)을 잘 넘기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럼 후(後)의 일을 잘하도록 하고, 다시 관(關)을 만나면 당신이 그것을 잘 넘기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은 그것을 일부 오점이라고 느껴 스스로 심리적 압력이 아주 중한데, 그것 또한 집착이 아닌가?”(각지 설법 12-2012년 미국 수도 국제 법회 설법)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부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더욱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진이 아니었을까요? 제 수련이 그저 병의 환상을 없애고 죽음이 두려워서 한 것에 불과할까요? 비수련인인 남편조차도 제가 갈수록 정진하는 모습을 알아채고는, 아플 때만 연공할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연공해야 한다며 다정하게 충고했습니다.

죄책감 탓에 다른 수련생들과 교류할 수 없었고, 감히 사부님께 도움을 청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토록 형편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구세력은 이 집착을 이용해 저를 박해했고 그들이 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제 수련으로 닦아낸 능력과 정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에게 병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제가 제고해 올라간다면 이런 환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무수한 수련생이 대법과 사부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이런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쩌면 나는 더 이상 수련인으로 여겨질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부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여러 차례 저희에게 수련의 엄숙함을 일깨워주셨습니다.

2012년 저는 처음으로 법회에 참가했는데, 뉴욕법회였으며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이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사부가 어떻게 하겠

는가? 당신 자신이 한 것이 틀렸는데 사부가 그것들을 없애버린다면 이게 될 일인가? 당신이 잘하지 못하였는데 마난이 있다고 부숴버린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도하겠는가? 안 된다."(각지 설법 11-20년 설법)

한편으로는, 수련은 무척 엄숙한 것이라서 더 이상 수련인으로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집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머릿속이 흐릿하고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돌파구를 찾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12월에 이르자, 저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기침이 나와 법을 읽거나 진상을 알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능력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제 모든 기력을 소진하게 만들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없었고 가족과 동료들 모두 몹시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수련생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나서야 제 처지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단기 집중 항목에 참여하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협력해 온 수련생들이었습니다. 항목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자주 저희를 교란하는 병마의 환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제가 극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에서도 억지로 항목을 추진하려 했을 때, 시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고 아무리 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항목의 가장 중요한 이틀 사이 어느 날 밤, 저는 숨을 거의 쉴 수 없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흡입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딸은 제게 제가 사실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일깨워 주었습

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항목의 둘째 날을 넘겼으며, 이어진 나눔 전화에서 마침내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았습니다.

깊이 있는 법공부와 수련생들의 믿을 수 없는 지지를 통해, 저는 짙은 안갯속에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본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죽음과 직면하다

저는 두 달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일부 수련생들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 굳건한 정념을 품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만약 제 정념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병원에 가봐야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한 수련생은 이에 대해 아주 담담하게, 제가 수련을 하고 싶은지 묻고 죽음이 두려운지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설령 죽더라도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병원에 가는 순간 죽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과거에 병업 중인 여러 수련생을 병문안하러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재촉했을 때, 저는 심지어 병원에 가면 오히려 더 쉽게 죽을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더욱 정진하고, 강력한 정념을 발하며, 사부님과 대법의 위력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견뎌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진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수련했

습니다. 비록 수련인에게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사부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저에게 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사부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저의 정념이 충분히 강하다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모든 느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고, 병원에 가더라도 여전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든 저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 교류 글에서 읽었던, 정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수련인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에는 이미 만들어진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 제4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수련자가 되려고 하면,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그 마음에 의거해 닦아야 하며,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 의거해 깨달아야 하는데, 본보기가 없다."

제 내면에서 가장 강렬했던 생각은 바로 수련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인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며, 생사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저 자신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저는 이 갈등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련하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안배해주신 가장 좋은 결과일 거라 믿으며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이런 상태인데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사부님께서 줄곧 저를 보호해주시며 제 생명을 연장해 깨달을 시간을 더 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전법륜)

의사들은 수술을 고려했지만, 제 몸이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믿음을 사부님께 기댄 채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최종 결정과 제가 수술을 버텨낼 수 있을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사부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수련 경지가 사부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병원에 있는 동안 줄곧 법공부를 하고 안으로 찾았습니다.

매 단계마다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늘 지연이 생겼고, 한 가지 문제가 막 해결되면 또 다른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집착을 내려놓을 시간을 더 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몰랐지만, 아마도 제 마음이 충분히 흔들림 없지 못해서, 만약 이런 지연들이 없었다면 사부님께서 제가 수술을 버텨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경지에 제가 아직 다다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확신한 것은 사부님께서 줄곧 저를 보호해 주셨고, 바로 사부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 동안, 한 수련생이 문자를 보내 나누어 준 생각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저 자신에게 자비를 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중요해요. 오직 당신, 사부님, 그리고 당신의 길뿐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부님께서 당신을 본마음으로

이끌어 돌아가게 하세요. 매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당신이 안배에 따르게 하세요. 그리고 짐을 좀 덜 짊어지고 과감하게 자신의 요구를 내세워, 항목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이 모든 이야기가 제게는 아주 터무니없게 들렸고, 늘 자신을 더 다그치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자책하던 제가 줄곧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수련이 나태해진 탓에 지금의 상태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그 해답이 조금 긴장을 풀고 자신을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당신의 조언을 반복해서 읽을게요."

결국, 그녀의 나눔은 제 마음속에 줄곧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구세력의 잘못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들의 안배이고 사부님께서는 그중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부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십니다.

비록 제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안개를 떨쳐내고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여 저의 서약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수련의 마음은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진정한 제가 선량하고 순수하며, 이 세상에서 형성된 후천적인 관념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고, 구세력이 이러한 관념들을 이용해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책임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그들의 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니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정념은 더욱 맑고 또렷해졌으며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구세력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저 자신이 사부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부님께서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사부님께서는 당연히 저 또한 구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 자신이 사부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돌파구를 찾은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부님께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관념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세력의 안배를 제거하려는 제 정념은 더욱 강렬해졌고, 점차 제 생각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을 감지하다

이 힘든 시기에 저는 신묘한 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제 본래의 진정한 자아를 느낄 수 있었고, 제 본성을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속인 관념과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 중에서는 약간 낮고 굵은 편이었습니다. 업을 없애는 중에 입을 열어 말하려고만 하면 기침이 나왔는데, 나중에 저는 좀 더 부드럽고 톤이 높으며 더 여성적인 목소리로 법을 읽으면 평소 목소리로 읽을 때보다 기침 횟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법을 읽는 소리는 제 마음에 새롭고 다른 느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상태와 넓고 큰 자비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이 평온하고 자비로 가득 찬 부드러움이 제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속에서 형성된 제 '개성'이 이런 부드러운 본성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이런 개성의 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굳센 군의관 간호사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1960년대 여성 인권 운동 시기에 젊은 여성이었고, 당시 아버지에게 꽤 억세게 굴었습니다. 저는 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오르고 암벽 등반을 하며 보냈던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다른 '선머슴' 같은 활동들도 생각났고, 도심 속 위험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소녀로서 강인해져야만 했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저의 본성과 이번 생에 제게 덧붙여진 것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요소들이 제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방식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본 집착을 파헤치다

이와 동시에, 한 수련생이 어떤 견해를 나눠주었는데 처음에 저는 꽤 저항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게 스스로를 '슈퍼맘'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이러한 정체성이 사실은 일종의 자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저항감을 넘어 심지어 다소 모욕감마저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결국 제가 저의 주의식을 약하게 만든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년 안에 저는 아이 셋을 낳았고 전부 조산사가 아이를 받아주었으며, 스스로 자연분만의 고통을 견뎌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저 스스로 아주 굳세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세 아이를 키우며 제 삶은 언제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생계, 진상을 알리는 항목, 인생의 위기, 경제적 궁핍, 결혼 생활의 시련, 아이들의 학교 문제, 가족의 건강, 뜻밖의 사고 등 일일이 다 꼽을 수

도 없었습니다. 저는 내내 압박감 속에 살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슈퍼맘'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강하고 유능하다는 그 느낌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칭찬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와, ○○씨, 정말 많은 일을 해내시네요.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내시는 거죠? 당신은 정말 좋은 엄마예요. 당신은 정말 강인한 여성이군요." 어머니라는 신분은 이미 수련인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을 조절하려 애썼지만, 제 압박감이 사실은 이기적이며 '슈퍼맘'이라는 자아가 팽창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원을 깊이 파고든 후, 저는 그 지속적인 '압박'감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제가 '당연히' 쉬어야 하고 안락함에 대한 갈망을 '당연히' 채워야 한다고 느끼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문자 그대로 스트레스성 폭식이었고, 때로는 TV 시청이나 과도한 수면, 그리고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깊이 빠져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중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당신의 형상과 똑같은 당신이 누적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구성된 것으로, 당신을 통제했다."(각지 설법 15-2019년 뉴욕 법회 설법)

이런 근본적인 집착들이 바로 저와 대법 사이의 두터운 장벽의 근원임을 깨달았을 때, 저의 주의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도 강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고, ‘압박을 느낀다’와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만약 제가 아주 바쁘고 압박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야, 더 이상 이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때로는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주 간단해서, 기나긴 출퇴근길에 대법 음악을 듣고 따라 흥얼거리거나 대법을 소리 내어 외우기도 합니다. 그 하루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런 것들은 제 내면 전체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수련생을 소중히 여기다

올해의 이런 교훈들을 거치며, 제가 인식한 관념과 집착들을 이미 완전히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여전히 흔들리고 수련하는 길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이 심득체험을 쓰는 것이 제게 이런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도록 돕고, 이런 면에서 계속 제고해 나갈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비를 넘기며 얻은 또 다른 큰 깨달음은 바로 다른 수련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수련 심득을 나누는 것의 힘입니다. 제가 죄책감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을 때 저는 고립에 빠졌고, 수련생들 역시 제가 자신의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희가 서로 곁을 지키게 하셨고 단체 법공부, 단체 연공, 심득 교류라는 수련 형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마땅히 서로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약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굳건한 정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맺음말—남은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수련하다

저는 올해 겪은 시련이 제게 더 이상 천천히 할 시간이 남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집착을 닦아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집착을 닦아낼 기회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저 제 개인의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가 겪고 있는 정법시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집착을 닦아 없애기를 줄곧 피해 온 분들께, 이 순간을 붙잡으시라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련은 몹시 엄숙한 일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안으로 찾으십시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연공(煉功) 중에 이런 교란, 저런 교란이 나타나면, 당신이 아직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전법륜)

저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올해 저를 지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정념을 발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내주신 격려와 조언에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 원고)



▲ 2026년 10월 25일, 호주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멜버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15만 3390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